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 4개 중 2개 충족

유행 2주째 감소·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 충족 중 변수...양성률 21.7%, 출입국 규제 더 완화 코로나19 백신 SNS 예약 종료...현장 집중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기준으로 세세한 지표 4개 중 2개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발 변이 유행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내 마스크 기준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확진자 2주간 감소세가 나타났고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이 여유가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기준 4가지 중 2가지가 참고치를 충족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로, 각 지표별로 참고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는 전주 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줄고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한다. 다음으로 ‘안정적 의료 대응’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개량백신 접종률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 시설 60% 이상이다.

이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 두 가지가 충족됐다. 지난해 12월 3주차(19~25일) 일 평균 확진자는 6만 7252명이었으며 12월 4주차(26일~1월1일) 6만5400명, 1월 첫주 2~8일 5만 7705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다. 병상 상황은 발표 당시부터 30%대로 안정적인 상태였고 이번 달에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주간 치명률도 지난 8월 이후 꾸준히 0.1%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위험군의 접종률도 고령층은 31.4%, 감염취약시설 55.1%로 참고치에 미치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을 발표할 당시 “각 기준에 따른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방대본 측은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 일정을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 사항을 포함해 중대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및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 2일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도 1일 이

내로 PCR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사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 2~7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총 7465명이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은 1643명 중 357명(21.7%)이 확진돼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정부가 이날부터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출입국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당분간 해외유입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점에 대해 “중국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해서 상황을 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독감 등 다른 예방접종처럼 예약 없는 현장접종으로 바뀐다. 기존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백신 예약접종은 지난 8일부터 종료됐다. 단 거주지 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과 백신 종류는 지도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



담양소방, 2022년 구조구급활동 통계 발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구조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조활동 건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며 구급활동 건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실버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안전컨설팅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버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 전기화재 예방 '트래킹 클리너'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콘센트 내 습기와 먼지, 분진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트래킹 클리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동부소방,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서장 지도방문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지도방문을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제주해경청 하태영 총경 초청 신입경찰 특강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제주해경청 하태영 기획운영과장을 초청, '다이아몬드 같은 조직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완도해경, 소안도 인근 좌초보트 신속 구조...인명 피해 없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최근 소안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 A호(0.3톤급, 승선원 3명)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에 나섰다

완도=기동채재본부

“벗었던 마스크 다시 썼다”...미세먼지·황사 기승에 ‘아우성’

미세먼지 농도, 서울127 $\mu\text{g}/\text{m}^3$ 등 ‘매우나쁨’~‘나쁨’ “운동하러 나갔다가 20분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가족끼리 근교에 나가 외식하려고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서 배달시켜 먹었어요.”

지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종일 뿌연 하늘이 이어졌다. 대낮에도 날씨가 흐리고 거리가 먼 건물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바깥 나들이를 즐기려던 시민들은 모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9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에서 ‘나쁨’ 수준을 보였다.

이날도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27 $\mu\text{g}/\text{m}^3$, 인천 160 $\mu\text{g}/\text{m}^3$ 로 ‘매우나쁨’~‘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종일 기승을 부리자 시민들의 야외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새해 첫 주말을 맞아 가족과 나들이 겸 외식을 즐기려던 직장인 이모(37)씨는 미세먼지로 흐린 바깥 날씨를 보고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연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새해 첫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가려고 했다”며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를 달래느라 고생했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강모(32)씨도 “주말에 한강에 나가서 러닝이나 사이클 타는 걸 즐기는 편인데, 지난 주말에는 20분만에 다시 집으로 들

어왔다”며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더 몸이 나빠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에 사는 직장인 송모(36)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바로 벗는 편이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다시 쓰게 될 줄 몰랐다”며 “공기청정기도 구매했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현장 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단축 근무나 작업 중지는 사실상 어렵다”며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쉬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제작진으로 일하고 있다며 윤민지(28)씨는 “촬영 한 번 나가면 최소 15시간은 밖에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꽤해다”며

“지금은 짙어서 감수하는데 시간이 지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서울에 사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동해안 쪽으로 피난을 왔다”며 “서울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긴 하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추운 것도 싫는데 조금만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또 난리를 친다”며 “차라리 이렇거든 추운 게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주말 내내 이어지던 울겨울 최악의 미세먼지는 당분간 한반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대기질류와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영서 일부 지역은 오는 12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최이슬기자



한파 지나고 찾아온 미세먼지

서울 및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9일 서울 시내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 기재한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위반 혐의 추가 조사 실시

목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99t급 쌍타망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8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7.7km 해상에서 고등어 등 2250kg과 3660kg을 각각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500kg과 2000kg을 포획한 것처럼 허위(축소)로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A호 등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무허가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22척을 나포했다.

목포=기동채재본부